남은여생 절대로 속지 않고 사는 법

(골2:8~19)

8.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11.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남은여생 절대로 속지 않고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이제까지는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크고 작은 일에서 속으면서 살았지만 남은여생은 죽을 때까지 절대 속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크고 작은 일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 속지 않고 사는 법, 이게 과연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우리가 왜 절대 속지 않고 사는 법을 알고 살아야만 하느냐?
여러분, 속이는 것만 죄가 아닙니다.
속는 것도 죄입니다, 속는 것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어감 상으로 조금 미흡해요.
오히려 속이는 일보다도 속는 것이 더 근본적인 죄악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에게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담이 누구를 속여서 죄가 시작됐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속음으로써 죄악이 시작이 됩니다,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이라 그러면 속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형법상 민법상 걸리는 그런 속음 그런 사기를 당하지 않더라도, 자식에게 속고 남편과 아내에게 속고, 부모에게 속고, 친구에게 속고, 동료에게 속지 않습니까?
그렇게 속는 것은, 우리가 아직 참된 신앙인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여전히 죄악이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죄가 속는 거예요.

예수님이 속는 거 보셨습니까? 절대 안 속아요.
12제자가 다 배신을 했어요, 속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미리 아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두고 다 떠나가리라' 아셨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속으셨습니까? 가롯 유다가 예수님 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럼 누가 속습니까?
로마황제 시저, '아! 브루투스 너마저…'
그렇게 믿던 브루투스에게 칼로 죽임을 당하면서, 그렇게 한 말이에요.
'브루투스 너마저…' 이런 말은 신앙인에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나의 아들로서 너마저…' 이런 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거 없습니다.
배신을 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속지는 않습니다.
가롯 유다가 배신하고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베드로가 배신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속지 않으셨습니다.
배신하는 것은 당사자의 문제이지만 속는 것은 내 문제에요.
죄악이 관영한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는 속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속음의 문제를 좀 더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정말 첩첩산중이고 점입가경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속임수만 속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만 속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럼 또 뭐에 속고 삽니까?
대학강단에서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는 강의 거의 전부가 속임수라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위인전이 우리들에게 뜻하는 바가 거의 99.9% 다 속임수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 이 순신에 대한 이야기, 칭기즈칸에 대한 이야기,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 이런 위인전이 우리에게 시사하고 뜻하는 바가 다 속임수입니다.
믿어져요 여러분?
그리고 모든 학문과 모든 사상, 나아가서 모든 종교가 다 속임수입니다, 다~ 속임수를 담고 있는 겁니다.
안 믿어지지요?
뭐 안 믿거나 말거나, 오늘 본문이 뜻하는 바가 그거라는 얘기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학문, 종교, 베스트셀러인 자기계발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생각,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 자신들이 속고 있는 걸 말하고 있으니까, 본의 아니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전문지식에 대해서 자기가 의미부여를 하는 것은 속고 있기 때문인데, 그 속고 있다는 걸 모르니까 자기 전문지식이 참인 줄 알고 열심히 속이고 사는 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노아홍수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지고, 가장 높은 산꼭대기까지 다 덮일 정도로 온 세상이 다 홍수로 범람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상이, 속임수로 범람하고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뒤덮은 홍수에 노아의 가족이 말려들지 않은 것처럼, 참된 신앙인은 이 세상에 범람하고 있는 홍수 같은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생동안 절대 속지 않는 겁니다.
나를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기억하세요!
죄악은 속이는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속는 것에서 시작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누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것이 속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우리가 흔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흔히 접하는 그런 내용의 단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지금 번역에 돼있는데, 헬라어 원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철학과 헛된 속임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본문을 제대로 번역을 하면 헛된 속임수인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헛된 속임수라는 겁니다.
근데 그 헛된 속임수인 철학 안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말 안에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 포함시킵니다.
미국에서는 문학박사를 받아도 Ph. D, Ph. D가 Doctor of Philosophy 아닙니까? 철학박사

에요.
그리고 경제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도 철학박사입니다, 신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아도 철학박사에요.
그런 것처럼, 모든 학문 분야의 박사가 철학박사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각 분야의 초등학문이 있을 텐데 그 모든 걸 다 철학이라는 말로 싸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의 전통 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가 들어갑니다.
또 위인전, 이것도 사람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도덕, 원칙, 강령, 관습 다 사람의 전통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의 초등학문, 지금 대학에서 강의 되고 있는 각 분야의 학문들이 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속하는 겁니다.
이걸 따르는 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철학이라는 말로 모든 종교와 각 분야의 베스트셀러 그리고 위인전 같은 것까지도, 그리고 각 분야의 모든 학문도 다 싸잡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의 덩어리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의 덩어리.
그래서 철학이라는 말로 다 싸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철학은 골로새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영지주의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마는, 영지주의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단으로서 철학의 한 유파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계기로, 사도바울은 범위를 확장시켜 철학전체를 얘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철학의 핵심이 생각이고,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러면, 종교도 생각으로, 위인전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의미도 생각으로, 뭐 베스트셀러도, 각 분야의 모든 학문이 다 생각으로 이루어져요, 생각으로.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따르는 것이 죄악이고, 속음이고, 그 대신에 속지 않고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뭔가 의미를 알려면, 그 아담의 이야기로 원초적인 타락의 현장으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세워 두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판단한다는 것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를 때, 예를 들어 돈이 안 벌렸다,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모르면 생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돈이 안 벌리는 건 나쁜 일이다고 규정을 지을 때 생각이 돌아가고, 돈이 벌리는 게 좋다는, 이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이 있을 때 돈 벌려는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하는 능력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사람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생각을 받아들이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돈이 안 벌렸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안 벌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냐를 받아들이고, 아~! 이게 이런 거구나, 돈이 안 벌리는 것은 지금 안 벌리는 게 좋으니까 안 벌리게 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따라가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너희가 생각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생각하는 능력을 왜 잠재우고 있느냐,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데 물론 생각하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꼭 거기다만 쓸 필요가 없다, 너희 스스로 생각할 수가 있다, 독자적으로'
그래서 타락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속은 거예요.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망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 몸이 조금 아프기도 하고, 돈도 안 벌리기도 하고, 자식에게 문제도 생기기도 하는데, 그걸 다 내가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바람에, 다 불행한 일로 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에는 지금 돈 벌리는 게 큰일 날 위기의 상황인데, 몸이 무조건 건강하기만 한 게, 자녀가 무조건 세상적인 기준으로 형통하기만 한 게 하나님이 볼 때는 큰일 날 일인데, 좋다고만 생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왜?
독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렇게 생각한 게 종교로 나타나는 거고, 온갖 철학으로 학문으로, 각종 베스트셀러로, 자기계발서로 다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고 속임수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만이 진실이라는 겁니다, 속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육신으로 오신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뭐에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의견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의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육신이 돼서 오신 사건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 다는 건 어떻게 따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식에게 속는다.
왜 자식에게 속아요? 자식을 따르니까 속아요.
자식을 앞에 놓고 할 일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마음으로 붙잡지 말고, 자식의 생각을 붙잡고 자식의 생각을 문제 삼고 그러지 말고, 자식에게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식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늘나라로 가버리는 겁니다.
사업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업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를 쫓아가려고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원칙을 몸에 습득하려고 그래요, 속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사업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게 답입니다.
경제학에 대해, 재정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자식문제에 대한 답은 자식 전문가에 가서 묻는 게 아니에요.
자식 전문가는 자기가 속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채로 자기의 의견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따르는데, 사업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교육이든 뭐 그 어떤 문제라도, 속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야지 속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갈 때, 나를 배신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가 속지 않아요.
내가 속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육신이 되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마귀에게 속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그 속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유전되어서 속고 있는 상태이고, 죄악이 관영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그 다음, 생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속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견이 육신이 되어 나타나신 분이시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가면, 그 모~든 분야에 대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행동을 하나님의 의견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제 분야의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에 가 닿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속지 않으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의 문제, 그리고 두 번째로 속지 않으려면 채움의 문제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 9절에 보면 '그 안에는(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만이 우리 안에도 충만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올바로 이해하려면, 아담이 마귀에게 속은 현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면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근데 생각이 왜 돌아갑니까? 선과 악을 판단하니까.
그런데 뭐가 내게 좋은 것이라 선이고, 뭐가 내게 나쁜 것이라 악입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그 비어 있는 마음이 채워질 때에 만족합니다.
만족이 지속될 때 기쁩니다, 기쁨이 지속되면서 행복이 생깁니다,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이 밥 찾듯이 그 속을 채우려고 할 때, 누가 나쁘다고 판단되는 걸로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다~ 내 판단에 좋다고 여겨지는 걸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돈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돈이 좋은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속은 거예요.
돈이 좋은 걸로 알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속은 겁니다.
돈은 내 마음에 채워 넣을 수 있는 좋은 게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벌려야 만족하다고 생각해요, 다~ 속은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워야 만족하는 거, 다~ 속는 겁니다.
내 스스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선악의 판단을 독자적으로 하게 되면서 생긴, 부차적인 속임수가 뭐냐 하면, 내 마음에서 돈을 갖고, 자식으로 채우고, 승진으로 채우고, 애인으로 채우고, 결혼하면 만족할 것 같고, 이렇게 다 속아버린 거예요.

선악을 판단하지 않을 때, 아담과 하와의 마음의 채움, 그래서 만족과 기쁨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자신만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만으로 채워져서, 만족한 상태로 에덴동산에서 살았던 거예요.
각종 동물의 이름들을 지어 가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독자적으로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채워 넣기에 좋을만한 것이, 돈이다, 자식이다, 애인이다, 남편이다, 아내다, 승진이다, 권력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업체다, 교회 부흥이다, 몇 백 억짜리 예배당이다, 다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 예배당이 있어야 만족한 거예요,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헌금이 얼마큼 나와야 만족한 거고, 교인 수가 얼마큼 늘어야 만족한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만족한 건데, 마귀가 속여 버린 거예요.
다~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다 속아 넘어가 버렸어요.
자식에게 속았어요. 왜 속아요?
자식으로 만족할 수 있을 거라 믿고, 자식에게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투자를 했으니까 속는 거예요.
사업에 배신을 당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 사업이 망했습니다.
사업에 속은 거고 배신당한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속았어요?
사업을 잘하면 내가 만족할 거라고 믿었어요.
누가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요, 누가?
성경 어디에 사업 잘하면 만족할 거라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함이 알아먹게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 당신도 하나님 자신이었고, 예수님 안에는 또 하나님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지시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그리스도를 따름을 통해서, 하나님만으로 채워짐을 기대하지 않는 한 속습니다, 반드시 속습니다, 누구나 속습니다.
그래서 속는 게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빈 마음을 채워서 만족하려 했으니까, 기뻐하려 했으니까.
요것만 이루어지면 기쁠 거라 생각해요.
그것 자체가 죄악이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보다 속는 게 엄청난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채움에서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으면 속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전문가를 따라가지 마세요.
오직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에서 오류가 없습니다,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렇게 따라갈 때 채움에서 속지 않습니다.
돈이 안 벌렸다고 슬퍼하는 거 속은 거예요, 돈이 벌렸다고 기뻐하는 거 속는 겁니다.
자식이 잘됐다고 기뻐하는 거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마귀에게.
자식이 잘못됐다고 슬퍼하는 속는 겁니다, 자식과 상관없어요, 내 기쁨은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사업과 상관없어요, 교회 부흥과 예배당 건축과 상관없어요, 하나님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과 채움에서의 속지 않음의 문제를 못을 박아버립니다.
11절에 '그리스도의 할례를 몸을 벗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식문제가 있을 때 전문가에게 가서 들으면서 속는 이유, 다른 종교에 기웃거리는 이유, 다른 철학과 사상에 기웃거리는 이유가 다 뭡니까?
이 몸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살아 있기 때문에, 같은 몸을 살았던 사람들, 과거의 사람이든 동시대의 사람들이든, 그 사람들의 생각을 기웃거립니다.
또 몸이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것들, 자식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라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육체 때문에 만나는 생각과 육체 때문에 만나는 좋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로부터 결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나를 속이는 생각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채움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만나지는 것이니까, 그리스도 십자가를 따라 가면서, 이 육체를 벗어버리는 이것을 통하여 생각의 속음과 채움의 속음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속지 않고 살아야 됩니다.
속는다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속는 겁니다, 나를 속이는 자를 원망할 거 없어요.

아담의 죄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슬프세요? 괴로우세요, 지금?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세요?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속아요?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는 이 말이 마귀의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카타콤에서도 행복하게 살았어요, 머리 둘 곳 없는 주님도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사도바울도 고난의 점철이었으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도바울은, 사탄의 말뚝인 질병을 안고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병 안 걸리는 게 복이다, 요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속고 사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속아 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돈이 안 벌리면 걱정해요.
그리고 교회가, 50명만 되는 거 상관없거든요?
근데 대형교회로 키우는 게 목회성공이다, 마귀가 요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성공 못한 자로 자기를 여기면서 스스로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생각, 말, 격언 이런 것들, 신념체계, 속지 마세요!
채움, 여기서 속지 마세요!
속지 않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을 때에, 세상에 돌고 있는 생각에 대해 죽고 세상에서 내 마음에 채워 넣으면 좋을 것이라 여겨지는 모든 것에 죽음으로써, 오직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아버지하나님의 생각만을 따르고, 아버지하나님만으로 채움으로써, 속지 않아 즐거운 하루하루를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